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행사 축하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항 관계자와 내빈 여러분,

동북아 물류중심을 향해 또 한번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밤낮없이 땀 흘려 오신 인천국제공항 임직원과 건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시민과 입주 물류업체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개장은 어제로 개항 5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에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개항 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41개국, 133개 도시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10만 톤의 화물과 2,600만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화물부문 세계 3위, 여객부문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달 초에는 국제공항협회의 품질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유수의 공항들을 제치고 '최우수 공항'

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운영과 서비스에 있어서도 당당히 세계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2008년까지 2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국제공항복합도시가 갖추어지면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개장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화물이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물류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여 줄 것입니다.

이미 물류단지의 절반이 임대될 정도로 업체들의 관심도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곳 자유무역지역을 통해서 1만 명의 고용과 7,3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항 관계자 여러분의 책임이 정말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개방화된 우리 경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종지구는 물론이고 송도국제도시의 발걸음도 매우 활기칩니다. 국제업무단지와 IT·BT 클러스터가 이미 조성되고 있고, 국제학교도 이달에 착공했습니다. 외국병원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비즈니스는 물론, 교육·의료·주거환경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국제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 단지가 들어설 청라지구 개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교와 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영종·송도·청라 지구가 막힘없이 연결되면 세계도시 인천의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천은 성공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 개장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